정교회주보

제2456호

2024.01.21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3> 아토스 수도원 중에서 3번째 서열의 이비론 수도원(사진)은 8세기에 최초로 지어졌고, 980년 이베리아(현재의 조지아) 출신의 요한 수도자가 확장하였다. 수도원 내부에는 16개의 성당이 있다. 165인의 성해와 금실로 수놓은 제의, 성기물, 십자가, 성작 등이 보존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20,000권 이상의 사본과 그리스어와 조지아어로 된 223개의 양피지 문서 등이 있다.

루가 제 12 주일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도자
성 아그니 순교자

(제8조 • 조과 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수도자 찬양송 ····· 85
- 성당 찬양송
-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 사도경 : 골로사이 3,4~11 (봉)362
- 복음경 : 루가 17,12~19 ····· 13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주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여라

믿음에서 우러나는 소망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언자 다윗은 외칩니다 : "주여, 당신께 피신합니다. 다시는 욕보는 일 없게 하소서. 당신의 정의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소서… 주여, 바라느니 당신뿐이요 어려서부터 믿느니 주 당신입니다."(시편 71,1-5)

또한 다윗은 확신에 가득 차 노래합니다 : "악인들에게는 고통도 많겠으나 주를 믿는 자는 한결같은 사랑 속에 싸이리라. 의인들아, 기뻐하여라. 주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바른 사람들아, 기뻐 뛰어라."(시편 32,10-11)

'성서의 메아리' 중에서

제20회 한국 정교회 대교구 의회에 즈음하여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2024년 사목 지침서

존경하는 신부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오늘 정교회 한국 대교구와 일본 엑사르히아의 제20회 대교구 의회를 열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 총대주교청 관할 한국 대교구의 설립 20주년(2004-2024)을 기념합니다. 이번 기념일은 한국 정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노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대교구 의회 주제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고린토 전 9,16)라는 바울로 사도의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먼저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인사와 축복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모든 영적 발전, 물질적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시며, 또 우리 대교구 의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십니다. 그럼 이제, 의회의 중심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의 모든 활동의 축이 될, '정교회 한국 대교구 및 일본 엑사르히아'의 제20회 대교구 의회 중심 주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울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고린토 전 9,16) 이는 우리가 주변에 정교회 증언을 더 널리 확산시키는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은 교회에게 '숨'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선교 활동이 없으면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몸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성적으로 "하나이고, 거룩하며, 공번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교회의 사도적 성격은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목적이 없는 교회"(알바니아의 아나스타시오스 대주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주님은 강한 어조의 동사 두 개를 명령형으로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15) 가장 중요한 정교회 성서 신학자일 것이라 여겨지는 미국의 전임 대주교 디미트리오스 대주교님은 이 매우 중요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체하거나 부연 설명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례 없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처음으로,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사도들의 선교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광활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분께 속하게 됩니다.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활동 공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디미트리오스 트라카텔리스(미국의 전임 대주교), Authority and Passion, Athens, Domos, 1983, 265) 바울로 사도는 이러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고린토 전 9,16)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 사도는 자신의 제자인 디모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십시오."(디모테오 후 4,2)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묻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선교할 때를 정해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적절한 때가 되도록 하십시오. 평안할 때나, 고요할 때, 성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묶여 있을 때도, 또 죽음을 향해 가는 중이더라도, 언제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크리소스토모스, 디모테오 후서에 관하여, 설교 9, ΕΠΕ 23:634)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교 활동의 진전이 크게 좌우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선교(복음 전파)에 대해 들으면, 우선 이것이 성직자, 그것도 미혼 성직자, 또 신학을 공부한 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전체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언변의 능력이나 복음 전파에 필요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선교를 위해 일하는 것을 주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 교회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4세기 출신으로서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여겨지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봅시다. 성인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교적 책임이 있다는 것과, 이웃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말솜씨'나 '많은 지식'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인상적인 방법으로 설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복음을 가르치는' 최고의 임무에 대한 소명과 의향이 없는 이들이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할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의 특징적인 구절 세 가지를 인용하여,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은 경제 생활에서의 훌륭한 예를 들며, 모든 사람이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행가들이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두기만 하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신이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것을 자기 안에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재산 전체가 사라질 것입니다."(크리소스토모스, 설교를 듣는 자들의 침묵에 대하여, ΕΠΕ 2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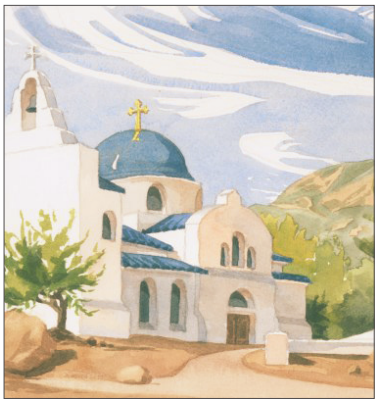
두 번째 구절에서 요한 성인은 청중들에게, 교회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에게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교회의 설교를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하인은 주인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또 이웃들끼리 서로 나누어야 하고 친구들끼리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에게까지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크리소스토모스, '나는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PG 56, 142)

성인의 세 번째 구절에서는, 누군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설교'의 지위를 갖는 조언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당신은 웅변의 능력이 없나요? 어휘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 이웃, 친구, 형제, 친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설교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언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말솜씨도 필요하지 않고 많은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솜씨가 훌륭했다면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을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크리소스토모스, 히브리 서신에 관하여, 설교 3, PG 63, 34.) 선교 활동을 위해 "일반적인 사람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요한 성인의 주장은,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했던 옛 시대 여성 신자들의 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크리소스토모스, 마태오 복음서에 관하여, 설교 73, PG 58, 677)

(다음 주, 주보에서 계속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월 25일(목)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소 식

▦ 대교구 의회 개최 공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20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합니다. 1부는 세례신자들과 예비신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전주 성당 관련 영상 시청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대교구 의회 의원들만 남아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모두 의회에 참석해 대교구 사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교구 신데즈모스 수련회

지난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에서 대교구 신데즈모스 및 예비신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전주, 춘천, 울산 성당에서 총 32명의 청년이 참가하였고, '선교'를 주제로 성찬예배, 기도, 성서공부, 모임, 산책, 운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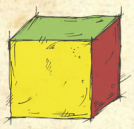
▦ 전주 성당 주일학교 수련회

지난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전주 성모안식 성당에서 주일학교 겨울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 체험을 통해 즐거운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 부산 성당 청년회 수련회

지난 13(토)일에 부산 성모희보 성당에서 '믿음과 변화'라는 주제로 청년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하여 점심식사, 대만과, 저녁식사 등의 일정으로 친교를 나눴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주님 안의 형제애

이사악 사부는 이렇게 자주 말하였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에 대한 나쁜 생각이 이곳 은수처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락한 적이 없었다. 또한 형제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은수처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